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9 호

2020 년 1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2020 UNGC 한국협회 정기 총회 안내 (3/17)
3. 반기문 명예회장, LEAD 그룹 실무진과 대화 (1/15)
4. 통일과 SDGs 토크콘서트 결과 (1/17)
5. UNGC Leaders Summit 2020

■ 본부 소식

1.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연례 서한: 비즈니스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년의 여정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단백질원이 되는 식용곤충
2. [Goal 4, 8, 11,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공항공사
3. [SDG 미디어 존] 선의를 이끄는 기술

■ UNGC 회원 뉴스

1. DGB 금융그룹,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선발 '더 비기닝 2020' 성료
2.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여성 창업 지원 '희망가게' 400호점 개점
3. SK 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더 큰 사회적 가치는 '상생'

■ CSR 뉴스

1. 2조이상 기업, 여성 이사 최소 1명 의무화
2. 글로벌 부호 셋중 하나 "ESG 투자중"
3. 올해 환경기업에 2천723억원 융자 지원...20일부터 신청 접수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Network Korea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설날을 맞이하여 뜻하시는 바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풍요로운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올림

2. 2020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3/17)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자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해 정기총회는 세계적인 CEO를 모시고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대표님들께서 이번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11:00 - 14:0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아라볼룸(6F)
- 참가대상 회원 대표 및 실무진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위임장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대참자를 필히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참가 신청]


[위임장]


3. 반기문 명예회장, LEAD 그룹 실무진과 대화 (1/15)



반기문 명예회장이 신년을 맞아 LEAD 그룹 실무진들을 만나 새해에도 UNGC 를 주축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월 15 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실을 방문한 반기문 명예회장은 LEAD 그룹 실무진과 한국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년 UNGC 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0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여성, 반부패, 환경 등 올해 협회가 주력할 사업의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반기문 명예회장은 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해당 이슈에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2020년 사업계획안

- Jan. - Feb.
 - UNGC Open Day 및 회원사 간담회 (1/16, 1/31, 2/7, 2/14)
 - [1/17] 통일과 SDGs 토크 콘서트
 -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 정책 및 전문가 간담회 (1/21, 2월 중순)
- Mar.
 - [3월 초] WEPs 증권거래소 Ring the Bell 행사
 - [3/17] UNGC 한국협회 정기 총회 및 정기 이사회
 - Kimberly Clark
 - [3월 말] UNGC 실무그룹 간담회



(※ 2020 년 UNGC 한국협회 사업계획안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UN 사무총장 재임시절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과정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일화와 각국 UNGC 설립을 독려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현재 UNGC 가 상승작용을 통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후 대화에 참여한 실무진들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자사의 노력과 현재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지속가능성 업무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등에 대해 들은 반기문 명예회장은 새로운 프로젝트 실행도 중요하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실무자에게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업무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지속가능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의 실무자들과 반기문 명예회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와 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솔루션 마련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2020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의 모범이 되고, 기업의 의견을 적극 게재해 줄 LEAD 기업의 활약을 기대하며,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4. 통일과 SDGs 토크콘서트 결과 (1/1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리더십코리아와 (재)통일과 나눔이 후원하는 통일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크 콘서트가 지난 1월 17일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한반도 통일 및 평화 전문가와 기업 및 국내 대학생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크 콘서트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SDGs 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통일에 있어 주치가 될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저희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통일과 SDGs 에 대한 생각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병길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SDGs 와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SDGs 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화통일에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첫 세션은 오준 제 24 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통일과 SDGs'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인간은 생존본능을 지녔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국제사회는 “평화를 원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준 대사는 현 시점의 한반도 평화에 있어 주요 과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한 신뢰 형성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를 목표로 해야 하며, 장기적인 남북한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병길 통일과 나눔 사무국장과 오준 대사의 '연사와의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SDGs 의 성공적인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오준 대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기후 변화와 불평등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둘을 중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북한 문제 접근방안과 갈등요소를 절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북한 주민을 돕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고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북한의 SDGs 를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제한사항이다"고 답했습니다.

오준 대사와의 연사 대담 이후에는 '통일과 SDGs, 청년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업, 전문가와 청년 간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이은영 국제푸른나무 국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김수연 KT 사회공헌팀장, 이영찬 연세대학교 학생과 구주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은영 국제푸른나무 국장은 "북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SDGs 가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은영 국장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스제약 합작회사와 같은 우수기업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대북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 기업들의 사례 공유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SDGs 이행에 있어 비즈니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원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은경 실장은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인 평화를 위한 기업활동(Business for Peace, 이하 B4P)을 소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에 있어 평화구축은 필요조건인 만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대원칙을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B4P 와 같은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 중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분쟁 위험국가에서 SDGs 와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를 대북사업에도 적용한다면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연 KT 사회공헌팀장은 미래에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KT 의 준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수연 팀장은 "KT 는 판문점 선언 이후,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대비하고자 전담조직(Task Force)를 구성했다"고 말하면서 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자문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수연 팀장은 "KT 는 다양한 IT solution 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인프라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실행하기에는 어렵지만, KT 는 북한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이행하고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패널로 참석한 이영찬 학생과 구주은 학생이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영찬 학생은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은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영찬 학생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가진 관점과 생각이 매우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청년세대의 역할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변화를 주도하고 북한을 국내 다문화 세대들 중 한 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주은 학생은 "청년들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확산', '대북사업에 대한 목적성 모색', '한반도 통일 및 남북협력 관련 활동 참여', '북한 주민들과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패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주체는 2030 세대라고 상기시키면서, 청년세대가 미래의 한반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



통일과 SDGs 토크 콘서트는 한반도의 평화와 SDGs 에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 다가올 통일 시대의 청년들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한반도 평화 수립 이슈를 SDGs 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특히 기업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5. UNGC Leaders Summit 2020 안내



UN GLOBAL LEADERS
COMPACT SUMMIT 2020

유엔 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 행사에
초청합니다.

2020년 6월 15-16일, 뉴욕

#LeadersSummit



2020 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이 10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다자주의의 미래, 유엔의 가치에 대하여 전세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UNGC Leaders Summit 2020 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의 장이자 축제가 될 Leaders Summit 은 2020 년 6 월 15 일-16 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유엔 본부 총회장 및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진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지이자 글로벌 기업활동의 심장부에서의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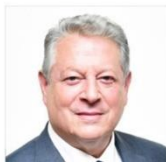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알 고어
미국 전 부통령



자밀라 자밀
배우, 사회운동가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제이콥 재비츠 센터
- **주요 일정:**

기조연설/ 환영 리셉션 / 소규모 세션 / 네트워킹 / 전시관 운영* / 문화행사 등

금번 Leaders Summit 행사는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되어 참여기업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기간 동안 보다 활발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관련 제품을 포춘 500 대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계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정 금액 후원을 통해 6월 16일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콥 재비츠 센터 전시관 전경 (예시)>

15-16 일 본 행사 외에도 14 일에는 뉴욕의 곳곳을 경험하실 수 있는 투어 및 행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4 일에는 전 세계를 일주하는 크루즈이자 UN 특별협의 자격을 가진 NGO로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피스보트(PEACE BOAT)가 뉴욕에 정박하는 날로, 내부 투어 등 오직 뉴욕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주간 하이라이트



6월 14일 일요일



6월 15일 월요일



6월 16일 화요일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UNGC Leaders Summit 2020 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0년 1월 31일까지 얼리버드 옵션으로 티켓 할인이 가능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0 더 알아보기 / 얼리버드 티켓 등록\]](#)

본부 소식

1.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연례 서한: 비즈니스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년의 여정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
years

Uniting business for a better world

#UnitingBusiness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

새로운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그 첫 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행동의 10년'이라고 명명한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10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맞아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희망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남은 10년의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기후 위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설정한 목표에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2019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이로써 2000년대는 역사상 가장 더웠던 10년이 되었습니다. 기온 상승의 추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1,000명의 기후학자들은 현재 지구가 명백하게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추세를 뒤바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 산불, 폭풍,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십억 인구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생존은 세계 리더들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2019년 5월,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한 투발루는 세계

평균의 4 배의 속도의 해수면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투발루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태평양 섬들 역시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과학적 데이터와 실증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COP 25 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각국 정부에 화석 연료 의존성을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단행할 것을 요구한 긴급 조치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 년 193 개의 유엔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5 년 동안 지속된 빈부, 남녀, 세대,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불평등 확대였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취약 계층은 훨씬 더 소외될 것입니다. 2019 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Accenture 와 함께 진행한 CEO Study 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CEO 의 88%는 세계 경제 구조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차세대 젊은이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2019 년은 전 세계가 기후 비상 사태에 눈을 뜨게 된 해였습니다.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전세계인들은 세계 지도자에게 기후 행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논의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6 개 대륙에서 18-25 세 청년 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 엠네스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후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1%). 이들에게 대담하고 과감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허울 뿐인 약속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자, 미래의 직장인, 기업가, 소비자, 투자자, 유권자로서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꿀 주역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 내 젊은 전문가들의 에너지, 상상력, 변화에 대한 갈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이자 변화의 주역들인 청년들이 기업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 SDG 혁신가(Young SDG Innovators)' 프로그램을 발족했습니다. 2019 년 9 월 리더스 서밋에 청년들을 비즈니스 리더로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영의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열 15 명의 '청년 SDG 선구자'를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 년 한 해 동안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우리의 유일한 미래인 1.5°C 기후 목표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2 월 개최된 COP 25 에서 177 개의 회사는 1.5°C 기후 목표에 맞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36 개 산업에서 활동하고 36 개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총 580 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합하여 시가총액 2 조 8 천억달러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프랑스의 연간 총 탄소 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약속은 기업의 향후 기후행동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소 중립 경제 시대의 도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은 “행동의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우리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의 대담한 비전을 이행하여 건강한 지구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20년은 유엔 창립 75주년입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의 폐허와 참혹한 반인류적 범죄의 역사 위에 인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개인과 공공·민간부문 지도자들이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는 지에 따라 인류 역사에 있어 우리 세대가 정의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2020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의 협력](#)을 주도했던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설립 20주년이기도 합니다. ‘행동의 10년’에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비전을 제시한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인간적 가치를 고려한 세계 시장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유엔과 기업이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을 반영한 글로벌 콤팩트를 창립했습니다.

코피 아난의 비전은 1,500명이 넘는 전세계 기업가들이 모이는 뉴욕 [2020 리더십 서밋](#) (6월 15-16일)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리더십과 방안을 다시 구상하여 새롭게 정의 내릴 것입니다.

이번 리더십 서밋에서는 저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임명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이끌게 된 점에 대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직원, 가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에게 약속했던 UNGC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올림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단백질원이 되는 식용 곤충



처프(Chirps)는 식용 귀뚜라미 분말을 핵심 재료로 사용하여 다양한 맛의 단백질 파우더를 제조합니다. 처프사의 단백질 파우더는 비타민 B12와 철분,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처프사는 첫번째 자사 제품인 곤충 스낵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었던 귀뚜라미 분말로 다시 한번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단백질 파우더는 건조되어 분쇄된 귀뚜라미 분말, 완두콩과 현미 단백질 같은 비건용 단백질을 섞어 만든 단백질 블렌드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1 봉 (35g)에는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처프사의 이번 신제품이 타사의 단백질 파우더에 비해 뛰어난 이유는 귀뚜라미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영양학적 이점에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처프사의 단백질 파우더 한 봉이면 비타민 B12의 1일 권장량 절반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경우 이 두 영양소의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겪는 영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뚜라미 분말에 함유된 자연산 프리바이오틱스는 [장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영양적 가치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유제품을 가공해서 만든 유장 단백질이나 대두 단백질보다 귀뚜라미 분말은 환경 보호에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처프사에 따르면 소고기 단백질 1kg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 양보다 귀뚜라미 단백질 1kg 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3000 배 적습니다.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10kg 에 달하는 사료가 필요하지만 1kg 의 귀뚜라미를 양식하기 위해서 드는 사료는 1.7kg 에 불과합니다. 귀뚜라미 1kg 는 8L 의 물을 소비하는데 반해 콩을 재배하는 데에는 1,600L,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15,000L 의 물이 필요합니다.

왜 처프사의 단백질 파우더에 주목해야 할까요?

FAO 에 따르면 가축 방목을 위해 사용되는 축산용지는 전세계 경작지의 1/4 이며 가축 사료를 재배하는 데에만 경작지의 1/3 이 사용됩니다. 반면 귀뚜라미는 많은 양의 영양가 있는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양식하는데 토지나 물의 사용량은 훨씬 적습니다.

식생활에 있어서 친환경적·윤리적 소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성 제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백질과 철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기후행동

처프사는 소고기에서 단백질을 생산할 때보다 곤충으로부터 단백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배출량을 3000 배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 보호

곤충은 고밀도 환경에서 양식될 수 있고 사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용지를 사용합니다.

[\[원문보기\]](#)

2. [Goal 4,8,11,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공항공사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 등 전국의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고 항공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합니다. 좋은 일자리창출, 안전 및 보안체계 강화, 균형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UN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SDGs 전략 및 사례

Goal 4. 양질의 교육

지역아동 야간돌봄교실 '포티야(夜)놀자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들은 방임과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함께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2017년부터 공항 인근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돌봄교실인 포티야(夜)놀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티(Porty)'는 한국공항공사의 대표 캐릭터로 Airport(공항)와 Safety(안전)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며, 아이들의 밤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사업의 취지를 담아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총 8 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주 5 일, 1 일 4 시간씩 약 100 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와 함께 음악교육과 같은 정서지원프로그램과 특별활동, 야간 귀가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인재 육성을 위한 '조종인력양성사업'

전세계 항공여객이 증가함에 따라 조종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국내 조종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공사는 이러한 항공조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종사를 꿈꾸는 인재들을 지원하고자 조종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에 비행훈련 인프라를 설치하여 기초비행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제트전환과정을 직접 운영하고자 항공훈련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훈련용 제트항공기와 모의비행장치(SIM)를 도입하고 이론교육, 모의비행훈련, 실비행훈련 등으로 구성된 타 기관 대비 저렴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비용문제로 조종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훈련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하늘드림재단을 설립하였고, 비행훈련환경이 제한적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에 비행훈련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청년 일자리창출 특화사업 'KAC와 손잡고, 청년창업육성센터'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청년실업률을 맞이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만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창업육성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어 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고, 국내 최초로 항공분야 청년 스타트업에게 업무공간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공모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2019년 1월 초에 청년창업육성센터를 열어 기업들이 입주하였습니다. 최대 3년간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와 더불어 사무집기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더불어 창업 기업의 자립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판로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년 청년창업기업을 4개씩 추가로 선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양천가방협동조합 홍보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자활과 육성을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5년에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가방제조 소상공인들의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양천가방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브랜드(LANTT)와 제품을 개발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판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3층에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양천가방 소상공인 판로지원 홍보관'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포공항 개항 60주년을 기념하여 60일 동안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인 공항을 무상으로 공유한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무상임대구역인 'Social Market Zone(가칭)'을 김포공항 국내선에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계속하고, 사업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2018년 6월에 정규직 전환 합의를 최초로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21명과 위탁용역분야 정규직 대상자 4,146명 중 297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3,849명은 출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도 함께 진행하였고, 정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기존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항가족 모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조성

지역사회의 폭염 극복 방안 '쿨루프 캠페인'

매년 여름 우리나라는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쿨루프 캠페인을 시행하여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쿨루프 캠페인이란 옥상을 적외선 반사 흰색 특수안료를 사용한 차열페인트로 칠하여 실내온도를 3~4℃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7 월 한국공항공사 직원 및 가족봉사단,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약 120 명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폭염에 취약한 30 년 이상 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의 옥상을 차열페인트로 직접 도색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구당 에너지 비용도 약 2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며,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Goal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 적응대책'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집중호우, 열대야,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 30 년간 기후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했고, 제주 폭설로 인한 대규모 승객 체류사태 등 기후변화 피해사례를 모아 취약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65 일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비전 아래 전국 14 개 공항별 적응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관리 매뉴얼을 추가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14 개 공항의 책임자로 구성된 기후변화 적응협의회를 통해 적응대책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 공항 내 체류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되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4.a는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1989) 제 18항에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그 외의 학대 및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교육방안을 모든 국가는 도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세계교육포럼(WEF)에서 채택한 다카르 행동계획(2000)에서는,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2015년까지 남녀의 평등한 교육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해 안전하지 않은 교육환경과 교원의 편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세계교육포럼(WEF, 2000)에서 채택된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5번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性)인지적 학습 환경 추진은 SDGs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2008)에서는 아동이 장애나 성별에 무관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면서, SDGs는 아동의 장애, 성별을 고려한 학습 환경 제공을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8.3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 구현이 바탕이 될 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LO 발족 이후 개최된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IFP/SEED)을 발족시켰습니다. ILO에서는 중소기업(SMEs)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2009년 발족하였습니다. SDGs에서는 ILO의 설립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창의성과 혁신 지원에 더불어 MSMEs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1.b은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따른 통합재난위험관리 개발 및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The Global Goals 11

유엔은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1987)'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연재해 영향력 감소가 중요함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는 재난경감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2005)'를 수립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비롯한 국제사회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재해위험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나아가 제3차 유엔 세계재해경감회의(2015)에서 2015년 이후의 새로운 재해위험관리 프레임워크로 채택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는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계획되지 않은 급속한 도시화 및 부실한 토지 관리를 비롯해 인구 변화 재해 경감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 부재, 천연 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 생태계 파괴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위험의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해경감 전략 강화 및 재난 대응과 복원을 위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본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된 경제·법·사회·문화·환경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강조했습니다. SDGs는 이에 근거한 통합재난위험관리 개발 및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13.1은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모든 국가의 복원력 및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3 CLIMATE ACTION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적응력과 복원력을 강화한다.

The Global Goals 13

기후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국제기상기구(IMO)의 국제 기상학 연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 재해가 스톡홀름 선언(1972)에서 언급된 이후, 유엔총회(1989)에서는 자연재해감소를 위한 10년(1990-2000)을 지정하여, 주요 목표 달성에 관한 연례 보고와 자연재해 감소를 위한 10개년 프레임워크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21에서 자연재해의 도시 생산성 저하, 경제활동의 파괴, 인구감소를 인지하고 세계자연재해감소 회의(1994)에서는 2000년 이후의 자연재해 및 위험감소 전략 수립을 위해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한 요코하마 전략 및 행동계획을 선언했습니다.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2005-2015)에 이어 채택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2016-2030)을 통해 SDGs에서도 재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3. [SDG 미디어 존] 선의를 이끄는 기술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환경 파트너십



<수 올처치(Sue Allchurch), 유엔글로벌콤팩트 Outreach & Engagement 팀 대표 & 피터 길머(Peter Gilmer) 웹서밋 최고임팩트책임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9년 11월 5일부터 7일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웹서밋'에 참가해 3일간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7만여명의 혁신가와 기업가들이 참석한 이번 웹서밋에서는 IT 기업의 창립자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결정자,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구상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의를 이끄는 기술>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크는 수 올처치(Sue Allchurch), 유엔글로벌콤팩트 Outreach & Engagement 팀 대표와 피터 길머(Peter Gilmer) 웹서밋 최고 임팩트 책임자(Chief Impact Officer)가 참여했습니다. 피터 길머 최고 임팩트 책임자는 2013년부터 진행해온 웹서밋의 준비과정 및 실행계획에 참여해왔으며, 과학기술 기업인들과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인 Planet: tech 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본 토크에서 패널들은 웹서밋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강조하게 된 배경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본 토크에서 피터 길머는 환경 공동체와 과학기술 공동체가 함께 협력한 과거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구글(Google)과 환경 NGO 인 오세아나(Oceana)가 함께 불법 어업 방지 및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위성 기술을 시행으로써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피터 길머는 “공동체들간의 파트너십을 개선하고 협력을 이어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와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웹서밋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의 향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피터 길머 최고 임팩트 책임자는 웹서밋의 궁극적인 목표는 ‘긍정적인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웹서밋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친환경적 경영을 이행하는 스타트업과 정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길머는 “2013 년에 처음으로 웹서밋을 개최할 당시에는 IT 및 기술관련 기업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IT 산업 내에서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환경 관련 공동체와 과학기술 관련 공동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공동지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범세계적 행동을 가속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뉴스

1. DGB 금융그룹,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선발 '더 비기닝 2020' 성료



- 1월 14일, DGB 금융그룹은 지역민의 사회적경제 관심 재고 및 사회적경제 스타트업의 가치 실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대회 '더 비기닝 2020'을 진행함
- '더 비기닝'은 2년 연속 실시되고 있는 대회로써, 4개 기업이 심사와 오디션을 거쳐 대출형식의 기금(장기 무이자 & 무담보)과 상금을 DGB금융그룹과 DGB사회공헌재단에게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됨
- DGB금융그룹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선순환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하고자 함
-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은 "DGB금융그룹은 지역 사회경제적기업 후원으로 지역사회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힘

[CNB 뉴스]

2.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여성 창업 지원 '희망가게' 400호점 개점



- 1월 8일, 아모레퍼시픽은 자사가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 대출 지원 사업 '희망가게' 400호점을 열었다고 밝힘
-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의 자립을 위한 창업 대출을 지원하여 그 가족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사업임
- 창업을 통해 여성이 자립적으로 CEO가 되어 가게운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희망가게는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한부모 여성에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고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4천만원의 창업자금이 연 1%의 상환금리로 제공함.
- 희망가게의 역사는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의 가족들이 기부한 유산인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시작했으며,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19년 400호점을 개점하여 희망가게 창업주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3. SK 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더 큰 사회적 가치는 '상생'



- 1월 13일, SK이노베이션은 SK 울산CLX(Complex) 하모니홀에서 '202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총 29억6000만원을 계열 협력사에 전달함
- 본 행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울산시의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준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성훈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 박경환 울산CLX총괄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와 구성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음
-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3년 간 총74억7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약 1만5200명의 협력사 구성원이 지원을 받았음
- SK이노베이션은 "해마다 기금 규모 및 수혜자가 지속 증가해 왔으며, 올해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일부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더 큰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됐다."고 밝힘

[파이낸셜 뉴스]

CSR 뉴스

1. 자산 2조이상 기업, 여성 이사 최소1명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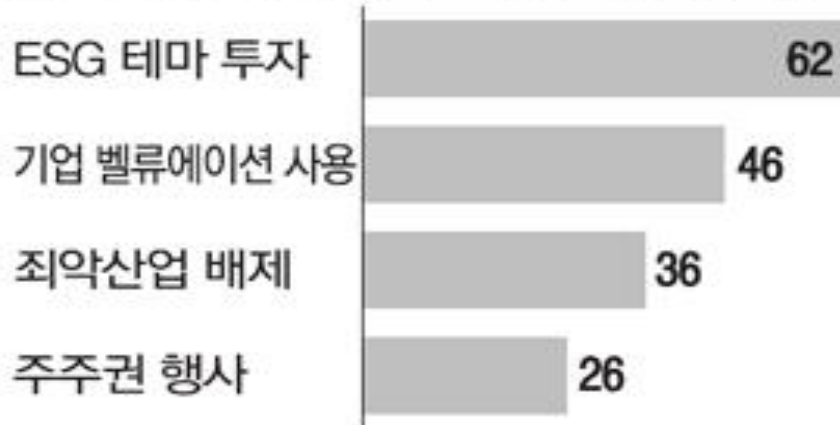


- 자산 2조이상 기업, 여성 이사 최소1명 의무화와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함.
- 본 개정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음.
- 올해 2020년 1분기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기업은 210곳으로, 이중 이사회에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은 78.5%인 165곳으로 집계됨.

[연합뉴스]

2. 글로벌 부호 셋중 하나 "ESG 투자중"

고액 자산가 ESG 투자 방식 (단위=%)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360개 대상. 자료=UBS·캠프던리서치

- 최근 스위스 금융기업 UBS와 영국 캠프던리서치가 진행한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리포트 2019'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 본 리포트는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360개를 대상으로 설문진행을 했으며, 응답자의 34%가 ESG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에 참여 중으로 밝힘
- 설문응답 기업은 지속가능성 투자금액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로, 향후 5년간 이 비중을 32%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밝힘
-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 62%는 청정에너지, 성 평등, 헬스케어 등 테마 종목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ESG 투자에 참여했다고 나타났고 46%는 기업 벨류에이션 평가에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투자 기업이 ESG 요소를 개선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는 적극적 개입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도 26%로 나타남
- ESG 투자는 환경에 대한 영향,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른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적극적 경영 개입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음

[매일경제]

3. 올해 환경기업에 2천723억원 융자 지원...20일부터 신청 접수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월 13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총 총 2천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용자를 지원하기로 밝힘
- 환경정책자금은 환경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체에 장기·저이자로 지원해주는 자금이고, 올해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로 1년 전보다 315억원 증가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분야별로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에 1천634억원, 환경 개선자금에 620억원, 환경산업 육성자금에 455억원, 천연가스 공급 시설 설치자금 14억원이 지원할 것을 밝힘
- 올해에는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과 환경산업 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의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증액분(350억원) 중 200억원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신설해 운영하기로 함
- 용자 신청 접수는 1월 20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며,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을 통해 분기별로 진행함

[한국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대덕섬유

2. COP/COE 제출회원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비씨카드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롯데홈쇼핑
- 환경재단
- (주)테라컨설팅그룹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4/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4/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JB 금융지주,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열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CJ 제일제당,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서스틴베스트, 나인,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삼덕통상(주),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브이디, 아진트랜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현대엘레베이터, 부영, SK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S 전선,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롯데지주

1 월 31 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